돌하르방의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

부정민*

<차 례>

Ⅰ. 들어가는 말
Ⅱ. 돌하르방의 특성
Ⅲ. 돌하르방의 상징적 의미
Ⅳ. 나오는 글

국문요약

오래전 제주 사람들은 돌에 인간의 형상을 새겨놓으면서 제주 돌에 생명을 불어놓고, 제주 사람들의 무의식을 투사해왔다. 이러한 석상들 중 대표적인 것이 돌하르방이다. 본 연구에서는 돌하르방의 일반적 정보와 지식을 알아본 후, 제주 사람들의 삶 속에서 돌하르방이 갖는 의미를 돌하르방과 관련된 전설, 옛이야기와 최근 문학작품인 시 등에 나타나는 돌하르방의 상징적 의미를 탐색해 보았다. 또, 이를 제주 사람들의 모래놀이 치료사례에 연결시켜 모래상자에 나타난 돌하르방의 심리학적 의미를 탐색해 보았다. 그 결과 돌하르방은 수호, 경계, 주술, 아니무스, 원형적 대부 등을 상징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제어 : 돌하르방, 상징, 수호, 경계, 주술, 아니무스, 원형적 대부

* 제주국제대학교 아동심리언어치료학과 조교수

www.kci.go.kr

Ⅰ. 들어가는 말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인간은 어떤 바위를 보고 그 바위의 영혼이나 정신이라고 느낀 것을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하려고 했다. 대개의 경우 그 형태는 인간의 모습에 가까웠다. 이렇게 돌에 어떤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어느 정도 분명한 무의식의 내용을 돌에 투사하는 것이다(Jung et al., 1964). 오래전 제주 사람들 역시 돌에 인간의 형상을 새겨 놓으면서 제주 돌에 생명을 불어놓고, 그들의 무의식에서 올라온 상징적 이미지를 투사해왔는데, 이러한 석상들 중 대표적인 것이 돌하르방이다.

상징의 역사는 모든 사물에 상징적 의미가 부여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말하자면 돌, 식물, 동물, 인간, 산이나 골짜기, 태양이나 달, 바람, 물, 불과 같은 자연물에는 물론 집, 배, 자동차와 같은 인공적인 사물, 심지어는 숫자, 삼각형, 사각형, 원과 같은 '추상적인 형태'도 상징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전 우주가 하나의 잠재적인 상징의 덩어리일 수 있다. 인간에게는 상징을 만드는 경향이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물건이나 형태를 상징으로 변용시키고 이를 종교나 미술로 표현한다. 즉 상징으로 변용시킴으로써 심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Jung et al., 1964).

Jung은 상징을 일상생활에서 익숙한 것일 수 있지만 그러면서도 그 통상적인 의미 외에 함축된 뜻을 갖고 있는 말, 이름, 혹은 심지어 그림들로 규정하였다. 또한 그는 상징은 무언가 막연하고 숨겨진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였다(Fontana, 1993). 즉, 상징은 우리의 말로는 완전히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심오하고 깊은 의미와 뜻을 지니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상징은 직접적이거나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하며, 해석을 통한 상징적 의미의 통찰은

www.kci.go.kr

새로운 자기 내면세계의 통찰로 이어지고 이는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한 통찰과 문제해결에 창조적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김춘경, 2009).

상징은 이미지와 정서(Emotion)의 복합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의미와 힘을 동시에 전달한다. 즉 상징은 그것이 표상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힘까지 전달하는 것이다. 상징이 가진 궁극적인 힘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데서 찾을 수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힘에 반응하고 재 반응하게 하는 능력에서 찾을 수 있으며, 상징과 인간의 감정은 상호 작용을 불러일으킨다(서경숙, 2011).

그렇다면 돌하르방은 제주 사람들에게 어떤 상징적 의미를 지녀왔으며, 어떤 정서를 불러 일으켜 왔던 것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돌하르방의 일반적 정보와 지식을 문헌과 사례를 통해 고찰해보았다. 다음 돌하르방과 관련된 전설, 옛 이야기와 최근 문학작품인 시 등에 나타나는 돌하르방의 상징적 의미를 탐색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를 제주사람들의 모래놀이치료 사례에 연결시켜 모래상자에 나타난 돌하르방의 심리학적 의미를 탐색하였다.

모래놀이치료는 정신(Psyche)이 스스로를 치유하며 완전하게 성장하려는 자율적인 성향을 가진다는 Jung의 분석심리학 이론에 기반을 두고, Dora Kalff가 Jung의 심리치료에 활용하기 위해 발달시킨 비언어적 치료방법이다. 모래놀이는 치료사와 내담자의 안전한 치료적 관계 내에서 모래상자에 삶의 모든 측면과 환상을 나타내는 축소 모형물들(figures)을 이용하여 자신의 내면에 있는 상상적 세상을 구체적으로 발현해가는 과정이다(Turner, 2005). 내담자는 자신이 의도하는 감정을 모형물들을 통해 투사할 수 있으며 안전하게 그런 감정들을 표출할 수 있다. 이 모형물들을 통해 내담자는 자신의 무의식을 모래상자에 드러낸다. 또한 전설, 민담과 신화와 같은 이야기 안에는 인류문화가 남긴 수많

www.kci.go.kr

은 원형적 이미지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은유적 요소로 가득하다(채혜정, 2009). 시 역시 그 안에 원형적 집단 무의식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 사람들의 모래놀이 치료에서 자주 사용되는 돌하르방 모형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제주의 전설과 이야기, 제주 사람들의 문학 작품인 시에 나타난 돌하르방의 상징적 의미를 분석해 본다면, 제주 사람들의 원형적 집단 무의식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제주 사람들의 내면세계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작업이 될 것이며, 돌하르방의 상징성이 새로운 의미로 확장될 뿐만 아니라 새롭게 탄생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Ⅱ. 돌하르방의 특성

제주도는 화산 활동으로 인해 이루어진 섬이다. 화산 분출로 흘러내린 용암은 제주의 구석 곳곳을 덮었고, 그렇게 덮인 용암이 식어 굴과 암반, 돌덩이가 되었다. 이 돌은 화산암, 즉 현무암으로 표면에 기공이 많고, 조직이 단단하지 않아 부서지기 쉽다


사진 1: 현무암

현무암은 무생물이긴 하나 생물인 인간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쳐왔다. 제주 사람들은 현무암으로 그들이 마주쳐야 했던 거센 바람과 왜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기도 하였고, 한편으로는 현무암으로 돌하르방뿐만 아니라 절구통 등을 만들었고, 더 나아가서는 도로 경계석 등을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에까지 이어져 집이나 무덤의 돌담, 밭의 돌담, 보도블록 또는 건물 입구의 보도 등도 현무암을

www.kci.go.kr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 사람들은 돌과 밀착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돌은 제주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고,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또,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인 섬이라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외부와의 교류가 원활하지 못하였고, 이런 이유로 사회·문화면에서 '단절'이라는 환경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강세움, 2011). 이처럼 제주도의 지리와 자연환경적인 특성은 육지와는 다른 고유한 문화를 형성하게 하였다.

이러한 문화 중 대표적인 것으로 석상 문화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읍성 앞의 돌하르방, 무덤의 동자석, 마을의 허한 곳을 막는 방사탑이나 거욱대, 돌코냉이 등의 석상, 그리고 미륵불로 불리는 동자복과 서자복 등 형태나 기능 등은 육지부와는 다른 제주만의 독특한 돌문화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돌하르방은 제주도의 독특한 돌 문화 중 제주의 대표 이미지로 통용되고 있다(김정선, 2008). 많은 사람들은 '제주=돌하르방'이라고 인식할 만큼(강영기, 2009) 돌하르방은 제주 문화의 상징이다.

돌하르방은 제주도의 대표적 민속유물로 1971년 8월 25일 지방 민속자료 제2호로 지정되어 그 원형이 총 47기가 전해지고 있다(장지국, 2008). 이 석상들은 옛 제주읍성에 24기, 정의현성(현 성읍)과 대정현성에 각각 12기씩 총 48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중 제주목의 1기는 분실되었고 가장 마지막까지 제주읍성 동문밖에 세워져 있었던 8기 중 2기는 1960년대에 국립한국민속관(현 국립민속박물관)으로 옮겨져 현재 제주도에는 총 45기가 남아있다(김정선, 2008).

돌하르방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1969년대 초부터 제주지역 학자들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돌하르방의 기원에 대해서는 몽고에서 기원했다는 북방전래설,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기원했다는 남방전래설 그리고 제주

www.kci.go.kr

도의 자생적인 조형이라는 점을 일부 포함한 육지 전래설 등이 있다(김정선, 2008). 북방전래설은 몽골 초원에 있는 훈촐로오라 불리는 석인상이 돌하르방과 형태 및 명칭에서 친연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남방전래설은 발리섬 주민의 수호신상에서 유래하였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제주자생설은 돌하르방이 제주도 지역의 고유문화와 신앙을 바탕으로 독창적으로 나타난 조형물로 보는 견해이며, 제주자생설을 주장하면서 한반도 본토의 장승이 제주도에 유입되어 변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육지 유래설을 일부 수용하기도 한다(장지국, 2008). 기원이 어찌되었든 간, 결국 돌하르방은 옛 제주인의 정신세계가 내재되어 현재의 제주 사람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는 '제주인을 상징'하는 '상징물'임에는 틀림없다.

돌하르방이란 돌로 만든 할아버지라는 뜻으로 제주도 방언이다. 이 명칭은 돌하르방을 민속자료로 지정할 때 관련 학자들의 갑론을박 끝에 채택되어 공식 등록된 후 통용되고 있다. 돌하르방이라는 명칭을 두고, 어린이들 사이에서 쓰이는 명칭일 뿐 재래의 명칭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제주도 전역에 걸쳐 성행되어 온 신당의 신명에는 많은 '할으방'신이 등장하며, 신들의 내력을 설명하는 무가(본풀이)에는 더 많은 하르방이 나타나 있어 어린아이들이나 쓰는 생소한 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제주에서는 돌하르방이라는 명칭이 만들어지기 전 일반적으로 우석목이라고 불렀으며(장지국, 2008), 이 외에도 수호석, 수문장, 두룽머리, 동자석, 옹중석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렀다(현용준, 2007).

돌하르방의 형태는 대체로 벙거지형 모자, 부리부리한 통방울 눈, 큼지막한 주먹코, 위엄 있게 꽉 다문 입술, 배 위 아래로 얹은 두 손의 모습을 하고 있다. 돌하르방의 평균 신장은 제주 187cm, 성읍 141cm, 대정 134cm이다(김정선, 2008). 돌하르방이 남성인지 여성인지(현재의 명칭으로는 남성으로 되어있지만), 신분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www.kci.go.kr

길이 없다. 하지만 항간에는 돌하르방에 맞추어 '돌할망'을 이야기하기도 하고(돌하르방 중 가슴이 볼록한 것을 여성성의 표현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잘 발달된 근육을 표현한 것으로 돌하르방의 기능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이며, 여성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강인한 남성성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신분에 있어서도 손의 위치에 따라 무인 혹은 문인으로 구분하여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잘못된 소개를 하기도 한다(김정선, 2008).

옛날 원시인들은 가공되지 않은 자연석을 정령이나 신의 거처로 믿어왔고, 많은 자연석을 묘석이나 경계석, 혹은 종교적인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 또, 어떤 바위를 보고 그 바위의 영혼이나 정신이라고 느낀 것을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하기도 했다. 대개의 경우 그 형태는 인간의 모습에 가까웠는데, 이러한 것들을 인간의 모습을 닮은 원시적인 석우상이라고 하였다(Jung et al., 1964). 돌하르방 역시 돌에 인간의 형상을 새겨놓은 석우상이다. 이처럼 돌에 어떤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어느 정도 분명한 제주 사람들의 무의식적 내용을 돌에 투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돌하르방의 대표적인 기능을 통해 옛 제주 사람들이 돌하르방에 투사한 무의식을 세 가지로 짐작해볼 수 있다. 우선, 돌하르방이 성문 앞에 세워져 있었던 점에서 성문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서서 성을 지키는 수문장·수호신으로서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 같다. 다음으로 성에 도착했음을 알리는 경계석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돌하르방의 코를 갈아먹으면 아들을 낳는다고 믿었다는 점에서 옛 제주 사람들은 돌하르방을 주술적·종교적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 왔던 것 같다.

www.kci.go.kr

Ⅲ. 돌하르방의 상징적 의미

1. 수호(Protection)

오래전 돌하르방은 제주의 삼읍성인 제주성, 정의성, 대정성 성문 앞에 세워져 있던 석상으로 문헌에는 1754년(영조 30) 김몽규 목사가 성문 밖에 옹중석을 세운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옹중'은 진시황 때의 장수인 완옹중을 가리키며 그의 용맹스러움을 기려 성문 앞이나 궁궐 앞에 세워지게 되는데 이후 이러한 석상들을 모두 옹중석이라 부르게 되었다. 조선시대의 여러 문헌에서도 길가에 세워지는 석상, 무덤 앞에 세워지는 석상 등을 모두 옹중석이라 부르고 있어서 삼읍성 성문 앞에 세워졌던 옹중석은 지금의 돌하르방임을 알 수 있다. 즉, 돌하르방은 성문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서서 성을 지키는 수문장·수호신으로서의 기능이 가장 중심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김정선, 2008).

돌하르방의 이러한 기능은 제주 사람들의 내면세계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듯하다. 아래의 시에서처럼.

> 황금분할의 구도 다 버리고 가분수의 몸체로 붙박이다 못해 다정다감의 모습으로 동네 어귀에서 언제나 나를 기다리셨다.(후략)
>
> 「돌하르방 어디 감수광」(김광협)

> 제주도는 물론 이 나라의 수호신으로서 우리들의 안녕을 빌고 또 빌어 안으로 꼭 다문 배꼽에 등불을 켜는구나. 돌할아버지는 참으로 신비하여라 돌 위에 돌 하나 황금보다 더 귀하나니 이승을 굴러굴러 천년 만년 우리들을 지켜주나니
>
> 「돌하르방」(문복주)

> 바당드레 감수광 어드레 감수광 아무디도 가지 말앙 이 섬을 지켜줍써

www.kci.go.kr

제주섬을 솔펴줍써 이 섬의 구신이 되어 줍써 (중략) 돌하르방이여 돌하르방이여 돌하르방만 믿엉 살암쪄 돌하르방 어딜 감수광 아무디도 가지 말앙 제주섬을 솔펴 줍써 「돌하르방의 노래」(하길남)

위의 시에서 돌하르방은 동네에서 다정다감한 모습으로 나를 기다려주는 '친근한 수호신'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천년만년 우리들을 지켜주는 '불멸의 수호신'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지니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귀신이 되어 섬을 지켜줄 것을, 돌하르방만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표현에서 돌하르방이 '진정한 수호신'으로서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상징성은 아래의 모래 사진 2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모래상자의 중심 부분에 분홍색 돌하르방 모형물 4개와 회색 돌하르방 모형물 1개가 놓여있는데, 내담자는 이 다섯 개의 돌하르방들이 자신, 엄마와 누나가 살고 있는 집과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13살 남자 내담자의 아빠는 6개월 전 사고로 죽었다. 그 후 15살 누나, 정신지체 엄마와만 살고 있는 상황이었다).



사진 2: 수호의 의미

내담자는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심리적 상실감,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신 안에 존재하는 돌하르방의 수호신적 특성을

www.kci.go.kr

불러냈던 것 같다. 사진 2에서 돌하르방은 내담자를 지켜주는 '수호신'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2. 경계(Threshold)

오래전 돌하르방은 외래인이 성문 앞에 다다랐을 때 성에 도착했음을 알리는 위치표시·경계표시의 기능을 가졌다. 이는 1960년까지 동문밖에 남아있던 돌하르방의 배치로 볼 때 성문 앞에 바로 붙여서 설치하지 않고 성문 앞에 난 S자형의 소로를 따라 돌하르방 4기가 배치되었는데 성과는 100여 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서 외지인이 성안으로 들어갈 적에 이 돌하르방을 통해 성에 다다랐음을 감지할 수 있었던 것 같다(김정선, 2008).



사진 3: 1914년 제주성의 돌하르방 모습

최근에는 공항, 마을, 학교, 관공서, 유명 관광지 심지어는 개인이 운영하는 가게 등의 입구에도 돌하르방이 놓여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로 볼 때, 어쩌면 제주 사람들에게 돌하르방 모형물은 한 세계와 다른 세계를 경계 지어 주는 동시에 돌하르방 사이로 들어간 안쪽 세계는 들어가기 전 바깥 세계와는 무언가 다르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위엄을 가진 소중한 세계임을 상징하는 것 같다.

이러한 상징성은 다음의 사진 4에서 엿볼 수 있다. 오른쪽 중심 부분에 돌하르방 모형물 2개가 놓여있는데, 이것은 한 세계와 다른 세계를 경계 지어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내담자는 두 개의 돌하르방 사이를

www.kci.go.kr

지나 들어간 안쪽 세계는 자신이 정말 원하는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계라고 이야기하였다(53세의 여성 내담자는 30년 동안 남편에게 폭언과 폭력을 당했다. 7개월 전, 그 남편으로부터 어렵게 탈출하여 현재 쉼터에서 거주하고 있다).



사진 4: 경계의 의미

내담자는 수 십 년 동안 남편으로부터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받아왔다. 현실 세계는 고통스러웠고 암담했다. 지금은 남편으로부터 어렵게 벗어나 쉼터에 거주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아가고 있으며,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다. 아마도 내담자는 남편의 학대로 인한 과거의 고통, 불안, 두려움 등과 현재의 안정감, 평온함, 행복함 사이의 혼란과 긴장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 안에 존재하는 돌하르방의 경계자적 특성을 불러냈던 것 같다. 어쩌면 돌하르방은 현실 세계와 무의식 세계를 경계지어주는 의미일 수도 있다. 아니면 무의식 상태와 자신과 현실을 바로 보기 위한 의식 세계를 경계지어주는 의미일 수도 있다. 사진 4에서 돌하르방은 내담자의 과거와 현재, 현실 세계와 무의식 세계, 무의식 상태와 현실 세계를 경계지어주는 '경계자'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www.kci.go.kr

3. 주술(Incantation)

돌하르방의 코를 문지르거나 일부를 갈거나 잘라서 삶아 마시면 부녀자의 잉태(孕胎), 특히 아들을 잉태하는데 효험이 있다고 믿어왔다. 사진 5를 보면 돌하르방들의 코가 깨져 있다.



사진 5: 코가 깨진 돌하르방의 모습

또, 제주도 곳곳에 놓여있는 돌하르방 중에 코가 깨진 것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런 행위와 관련된 듯하다. 관광지에서 젊은 여성들이 돌하르방의 코를 문지르며 '아들 하나 낳게 해 주세요'라고 속삭이거나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돌하르방의 코를 쓰다듬으며 '손자 보게 해 주세요'라고 정성껏 비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로 볼 때, 옛날은 물론 지금까지도 돌하르방은 여전히 주술적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6은 온라인상의 어느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다. 사진 속 여자는 자신의 한 손으로 돌하르방의 코를 만지고 있다. 그리고 이 사진 밑에 '꼭 아들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아기를 기다리는 한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라는 글을 남겼다.

www.kci.go.kr

사진 속 여자는 잉태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 자신 안에 존재하는 돌하르방의 주술자적 특성을 불러냈던 것 같다. 사진 6에서 돌하르방은 잉태를 원하는 한 여성의 소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주술자'로서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진 6: 돌하르방 코를 만지고 있는 여자의 모습

4. 아니무스(Animus)

돌은 종종 원형적인 여성 에너지와 연결되며(Weinberg, 2011), 남근의 형상은 남성성을 상징하기에 어쩌면 돌하르방은 제주 여성들의 아니무스(Animus)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다. 아니무스는 여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집단적 남자 이미지다(Fontana, 1993). 일반적으로 남성원리는 태양과 하늘에 의해서 상징되었는데(Cooper, 1978).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영웅,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모험가로 나타나며,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공격적이고 권력-추구적이고, 독단적인 측면이다(Fontana, 1993). 한편, 아니마는 남성 무의식 속에 묻혀 있는 집단적, 보편적, 여자 이미지인 여성 원형이다(Fontana, 1993). 일반적으로 여성원리는 달에 의해서 상징되었으며,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수용적, 보호적, 양육적, 수동적인 것을 의미하며(Cooper, 1978), 감상적이고 동정심 있고 다정한 경향으로 나타난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변덕이 심하고, 무정하고, 계산적인 측면이다(Fontana, 1993).

제주도라는 절해고도의 지리적 제한, 척박한 자연환경과 어려운 역사적 정황 속에서 제주여성은 집안일, 밭일, 바다 일에 더해 사회적 역할까

www.kci.go.kr

지 감당해 내야 하는 고난의 쓰라린 삶을 살아내야 했다. 제주도 여자들은 오전에 집안일을 하다가 오후엔 바다로 잠수 일을 나가거나 밭으로 농사일을 하러 갔다. 경우에 따라 농사일을 하다가 잠수 일을 하고, 잠수 일을 한 후 집안일 혹은 농사일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제주 여자들은 한 시도 가만히 앉아 쉴 틈이 없었다. 이에 비해 화산지형이라는 척박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남자들이 일할 수 있는 터가 제한되었다. 또한 섬이라는 환경 조건에서 남성은 언제 바다에 나가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존재였으며, 실제 남성들의 높은 사망률은 남편만을 의지해서 살 수 없다는 생각을 만들었고, 때문에 제주도 여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경제적으로 철저한 독립심과 자립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익혔다.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집안의 가장이 부재하게 될 것에 대한 어머니의 불안과 걱정은 자신의 딸에게 그대로 전수되었을 것이다. 이런 자연환경 속 강한 어머니와 함께 사는 아버지를 보면서 제주 여성들은 어떤 아니무스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었을까? 아마도 제주도 여자들의 부정적 아니무스는 '부재' 즉, 있어야 할 자리에 존재해 주지 않는 것이었을 수 있다. 반면, 긍정적 아니무스는 '존재' 그 자체로 한 자리에서 묵묵하게 기다려주고 지켜주는 모습일 수 있다. 돌하르방의 존재는 '묵묵함', '변함없음', '늘 기다려주고 지켜줌'의 의미와 통하며, 이것은 제주도 여자들의 긍정적 아니무스를 상징하는 것일 수 있다.

물질나간 제주 해녀들을 한 곳에서 변함없이 묵묵하게 기다려주고 있는 아니무스적 존재로서의 돌하르방을 아래의 시에서 만날 수 있다.

> 돌담 곁 물질나간 이들 기다리고 선, 까맣게 그을린 모습의…
> 언제 드러날까 먼 바다의 이어도 세월의 물결 넘어 눈썹 위에 그리고 섰다.
>
> 「돌하르방」(김재희)

www.kci.go.kr

아프리카와 북아메리카 인디언의 일부 부족과 게르만, 오세아니아, 마오리족, 일본에서는 예외로 태양이 여성적인 힘을 상징하고, 달이 남성적인 힘을 상징한다(Cooper, 1978). 제주 창조 신화에 등장하는 여신 '설문대할망'이 엄청난 남성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제주 역시 앞서 언급한 일부 지역에서처럼 태양이 여성적인 힘을, 달이 남성적인 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제주 사람들의 실제 생활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제주 여성들은 집안일, 밭일, 바다 일에 더해 사회적 역할까지 하면서 초인적인 남성적 힘을 발휘하였다면, 제주 남성들은 육해를 넘나들며 바쁘게 일해야 하는 부인을 위해 기꺼이 집을 지키면서 아이를 돌보았다. 또, 밭일 나간 혹은 물질 나간 부인을 묵묵하게 기다려주었다. 이처럼 제주 남성들은 수용적, 보호적, 양육적, 수동적인 여성적인 힘을 발휘하였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달을 상징하며 남성이 태양을 상징하듯(Cooper, 1978), 제주의 여성 역시 달로 상징되며 제주의 남성 역시 태양으로 상징된다. 또한 아프리카와 북아메리카 인디언의 일부 부족과 게르만, 오세아니아, 마오리족, 일본에서는 예외로 태양이 여성적인 힘을 상징하고, 달이 남성적인 힘을 상징하듯(Cooper, 1978) 제주 여성들은 달이면서 남성적 힘을 상징하며, 제주 남성들은 태양이면서 여성적 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설문대할망'이라는 신화, 그리고 제주의 척박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초인적인 남성적 힘을 발휘해야만 했던 제주 여성들의 역할과 수용적, 보호적, 양육적, 수동적인 여성적인 힘을 발휘하였던 제주 남성들의 역할을 보면 이러한 상징적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진다.

한편, 마리-루이제 폰 프란츠[1]는 자신을 아니무스-여성이라고 자처

1) 마리-루이제 폰 프란츠(Marie-Louise von Franz, 1915~1998)는 뮌헨 태생의 여성으로 어릴 때 스위스로 와서 취리히 대학에서 고대 언어학으로 학위를 받았다.

www.kci.go.kr

할 정도로 사회활동을 많이 한 여성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그녀는 아니무스가 지나치게 외향화되는 것을 특별히 긴 여름과 겨울 휴가 동안 깊은 내적 성찰에 잠김으로써(이부영, 2004) 보상하였을 수 있다. 제주 여성 역시 '아니무스-여성'일 수밖에 없었다. 밭일, 바다일, 집안일로 한시도 가만히 앉아있을 틈 없이 육지와 바다를 종횡무진 넘나들었던 제주 여성에게 '쉼'은 사치였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죽음'과 직결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과도한 외부 활동으로 인해 제주 여성의 아니무스는 지나치게 외향화 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자아 에너지의 균형이 깨짐으로써 무의식에서 보상적 결과물(Turner, 2005)의 에너지를 나오게 했을 것이며, 그것은 한 자리에서 가만히 묵묵하게 변함없이 서 있는 긍정적 아니무스의 에너지였을 수 있다. 이 에너지가 '묵묵함', '변함없음', '늘 기다려주고 지켜줌'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돌하르방으로 상징화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5. 원형적 대부(Archetypal Godfather)

돌하르방은 남근의 형상으로 남성성을 상징한다. Weinberg(2011)는 '남근 형상으로 조각된 하루방 피겨(Figure)는 제주도의 아버지이고, 할아버지이다. 이런 피겨(Figure)는 원형적인 아버지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그녀는 1933년부터 융의 제자이자 동료로서 융의 사상을 충실히 계승했고 그와 함께 공동연구도 했다. 그녀는 1948년부터 취리히 융 연구소의 교육분석가이며 강사로서 많은 후진을 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폰 프란츠는 융의 기본 입장에 충실하면서 융이 시작하고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을 계속 탐구하여 융의 심리학을 더욱 심화하였다. 그녀는 꿈, 민담, 연금술 등을 심리학적으로 해석한 수많은 책을 썼으며, 이런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분석심리학자이다.

www.kci.go.kr

돌하르방은 큰 눈, 큰 코, 일자로 꽉 다문 입, 큰 귀, 각진 어깨, 다른 석상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강조된 큰 두 손, 다부진 체격 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모습에서 '믿음직스러운', '강인한' 남성성을 느낄 수 있다. 아래의 시에서도 이러한 느낌이 느껴지고 있는 듯하다.

> 골동품과 같은 참으로 딱하기만 한 노인아. 청학골 선비의 후예들도, 요즘은 구경거리로 조롱받고 있음을 아직도 모르느냐. 찾아드는 신혼부부들도 주저함이 없이 너의 목에 매달려 사진도 찍고 태평양 넘어 등글어 온 코큰 관광객들마저 너의 코를 문지르고 비웃으며 지나가는구나. 무엄한 까마귀 놈까지 너의 상판대기에 물통을 갈기고 날아가는데, 그래도 너는 변함없는 충성으로 맡은 구실을 다하고 있다 우길 것이냐. 조랑말 타고 떠난 수령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노인아. 이젠 눈을 감고 물러설 일이다. 얼마나 세상이 야박해졌는가를 아느냐 고집불통의 노인아. 양중해의 「돌하루방」

위의 시에서 돌하르방은 세태의 변화 속에서도 꿋꿋하게 '변함없는 충성'으로 자신의 본분을 지키고 있는 존재, 자기가 모셨던 수령이 떠난 것을 알면서도 '영원히 기다리고 있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아래의 전설 속 돌하르방도 이러한 존재처럼 느껴진다.

> 옛날 어느 고을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나무를 해 가지고 내려오는데 하늬바람이 몰아치는 어느 언덕길 위에 퍼렇게 녹핀 노인이 우뚝 서있는 것이었다. 이에 나무꾼이 바람을 피하라고 노인에게 권했으나 노인은 내 팔자가 하늬바람을 맞으면서 이 언덕위에 서 있는 것이라며 고집스럽게 똑 바라보는 눈 하나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버티어 서 있었다. 나무꾼이 마을로 내려간 후 걱정이 되어 개장국을 사 들고 다시 올라갔으나 그 노인은 나무꾼의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똑바로 그 고집스러운 눈으로 빨리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었다. 나중에 나무꾼은 녹핀 하르

www.kci.go.kr

방에 의해 그 착한 마음을 보상받았고, 나무꾼과 같은 마을에 사는 욕심 많은 사람은 나무꾼의 얘기를 듣고 녹핀 하르방을 대접한 후 그로부터 금은보화를 구했으나 결국 벌을 받는다(이기정, 1963; 장지국 2008 재인용).

전설 속 돌하르방은 무언가를 '충직하게 영원히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그러면서 북쪽에서 불어오는 강한 하늬바람과 같은 '시련과 고통'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또한 '권선징악'을 행하고 있는 '원형적 대부'로서의 면모도 드러내는 듯하다.

한편, 돌하르방은 인간의 희로애락의 정서를 모두 경험한 것처럼 보인다. 옛 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47기의 돌하르방들 중 어떤 것은 '희', '로', '애' 또는 '락'의 정서를, 어떤 것은 '중(中)'의 정서를 또 어떤 것은 '화(和)'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듯하다.

물론 돌하르방이 어떻게 보이는가는 보는 사람들의 무의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대정현(사진 6)의 돌하르방은 자애로운 모습으로 친근하며, 정의현(사진 7)의 돌하르방은 눈매가 날카롭고 긴장된 표정이며, 제주목(사진 8)은 인간미 넘치는 모습(장지국, 2008)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다.

그리고 사진 속 돌하르방들의 표정은 인간의 다양한 감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제일 먼저 만들어진 대정현의 돌하르방은 소박하고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해학적인 모습(김정선, 2008)으로 보인다. 이것은 인간의 희로애락의 정서를 모두 경험하고 감정이 분화하여 발달된 마지막 목표라 할 수 있는 화(和)의 경지에 다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다. 중용(中庸)(이부영, 2004 재인용)에 '희로애락이 발하지 않은 상태를 중이라 하고, 발해서 다 절도에 맞는 것을 화라고 한다. 중은 천하의 대본이요, 화는 천하의 달도이다. 중화의 덕을 극진하게 하면 천지가 제

www.kci.go.kr

자리하며 만물이 길러진다'고 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돌하르방은 제주 사람의 희로애락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합·초월하여 '해탈'의 경지에 오른 '원형적 대부'를 상징하는 것일 수 있다.



사진 7: 대정현의 돌하르방



사진 8: 정의현의 돌하르방



사진 9: 제주목의 돌하르방

해탈의 경지에 오른 돌하르방은 아래의 시 안에도 존재한다.

웬일일까 왜 그랬을까 그 얼굴에다 남성의 심볼인 부리를 머리에 이고 두 손 가슴에 모아 겸손을 나타내며 괴로움을 웃음으로 달래 주던 우리들의 조상

「돌하르방」(이정림)

어깨의 굵은 선이며 맞잡고 있는 넉넉한 손이며 바람에 구멍 숭숭 뚫린 이끼 낀 허름한 옷이며 주름지고 거친 살갗으로서 나의 얼굴 까칠하게 부비시며 당신의 입가에 지으셨던 야릇한 미소 그 미소는 기쁨이셨던가 슬픔이셨던가 말해 무엇하랴

「돌하르방」(문복주)

www.kci.go.kr

아마도 돌하르방이 지닌 '믿음직스러움', '강인함', '충성', '기다림', '시련과 고통을 숙명처럼 견디어냄', '해탈', '권선징악' 등과 같은 상징성은 제주도 사람들의 정신 에너지로 충전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충전된 에너지는 정신적인 부정적 아버지의 이미지 측면을 정복하고 발달되도록 도왔을 수 있다. 즉, 돌하르방은 '원형적 대부'를 나타내는 것으로 제주도 사람들을 더욱 가치 있고 유능하다고 여기게 하는데 상징적으로 작용해왔다고 할 수 있다.

Ⅳ. 나오는 글

제주 사람에게 돌은 삶의 일부이다. 제주 사람들은 그 돌에 인간의 형상을 새겨 놓으면서 생명을 불어 놓았다. 그것이 바로 돌하르방이다. 제주 사람들은 돌하르방에게 무의식적 동일성을 해왔고, 그러면서 돌하르방의 이미지에서 나온 강력한 정신 에너지는 제주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상징적으로 작용하여 위기를 견디게 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왔을 것이다. 또, 제주 여성들의 아니무스 혹은 제주 사람들의 아버지 원형의 손상된 이미지를 이어주며, 자기와 더욱 진실하게 일치하는 새로운 정체감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왔을 것이다.

즉, 돌하르방의 상징적인 정신적 에너지는 왜적의 잦은 침입과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오는 온갖 어려움으로부터 제주 사람들을 지켜주었고(수호), 한 세계에 대한 지향성과 다른 세계에 대한 폐쇄성 사이의 긴장과 혼란을 경계지어주었고(경계), 부녀자들의 잉태에 대한 소원을 들어주기도 하였다(주술). 또,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육지와 바다를 억척스럽게 종횡무진해야 했던 제주 여성들을 언제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www.kci.go.kr

든든하게 지켜주기도 하였다(아니무스). 무엇보다도 제주 사람에게 돌하르방은 믿음직스러움, 강인함, 충성, 기다림, 시련과 고통을 숙명처럼 견디어냄, 해탈, 권선징악 등과 같은(원형적 대부) 상징적인 정신 이미지로 충전되어 그들의 손상 받은 남성성과 관련된 이미지 즉, 약함, 믿음직스럽지 못함,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불안함 등을 이어주었을 것이며, 자기와 더욱 진실하게 일치하는 새로운 정체감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왔을 것이다.

돌하르방은 여전히 제주 사람 안에서 상징적 에너지로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돌하르방의 상징성을 불러낼 때, 돌하르방은 우리에게 상징적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때로는 수호자로, 경계자로, 주술자로, 혹은 아니무스로, 아니면 원형적 대부로.



사진 10: 제주도의 돌하르방

돌하르방은 기다리고 있다.

당신이 돌하르방을 상징적 의미로 불러줄 그 날을…

www.kci.go.kr

참고문헌

강세움(2011), 제주 분묘 석상에 대한 조형성 연구 -동자석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영기(2009), 「'삼다'와 '돌하르방'의 문학적 의미」, 『영주어문』 18.

김광협(1996), 「돌하르방 어디 감수광」, 『제주문학전집』 1.

김재희(1997), 「돌하르방」, 『문학속의 제주-시선집』 191.

김정선(2008), 「옹중석: 돌하르방에 관한 고찰」, 『탐라문화』 33.

김춘경(2009), 『아동상담 -이론과 실제-』, 학지사.

문복주(1996), 「돌하르방」, 『제주문학전집』 2.

서경숙(2011), 「분석심리학에 기초한 시치료와 시의 치유적 속성」, 『독서치료연구』 4(1).

양중해(1996), 「돌하루방」, 『제주문학전집』 1, 250.

이기정(1963), 「제주도 전설 녹핀 하르방」, 『제주도』 8.

이부영(2004), 『아니마와 아니무스』, 한길사.

이정림(1997), 「돌하르방」, 『문학속의 제주-시선집』.

장지국(2008), 「제주도 '돌하르방'에 나타난 한국의 선도문화」, 『선도문화』 5.

채혜정(2009), 「모래놀이치료 속에 나타난 동화의 치유적 의미와 역할」, 『영유아아동정신건강연구』 2(2).

하길남(1997), 「돌하르방의 노래」, 『문학속의 제주-시선집』.

현용준(2007), 「제주석상 '우석목(돌하르방)'考. 제주의 수문장 돌하르방」, 제주돌문화공원.

Cooper, J. C. (1978). *An illustrated ecyclopaedia of traditional symbols*. New York: Thames & Hudson. (Trans, into Korean in 1994)

Fontana, D. (1993). *The secret languages of symbols*. London: Duncan Baird Publishers Ltd. (Trans, into Korean in 1998)

Jung, C. G., Henderson, J. L., Franz, V., Jaffe, A., Jacobi, J. (1996). *Man and his symbols*. J. C. Ferguson Publishing Co. (Trans, into Korean in 1996)

Turner, B. A. (2005). *The handbook of sandplay therapy*. California: Temenos

www.kci.go.kr

Press. (Trans, into Korean in 1994)

Weinberg, B. (2011). *Father images in sandplay therapy.* 한국임상모래놀이치료학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Internet

Bakdusanyoung(2006, November 7). The Jeonguihyeon dolhareubang of Seongeup folk village. Retrieved from http://blog.daum.net/ds4wfd/10253722(사진 8 출처)

Jalli(2012, January 28). The originator of dolhareubang. Retrieved from http://jejuhistory.com/23(사진 2, 5, 9, 10 출처)

The National Museum of Korea(2013, January 23). Dolhareubang. Retrieved from http://www.museum.go.kr/main/index/index001.jsp(사진 3 출처)

The school of us(2011, February 25). The dolhareubang of Daejeonghyun. Retrieved from http://cafe.daum.net/aoraj/XGCy/203?docid=3278978175&q=%B4%EB%C1%A4%C7%F6%20%B5%B9%C7%CF%B8%A3%B9%E6&re=1(사진 7 출처)

Wikipedia(2013, January 24). basalt. Retrieved from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25h0915a(사진 1 출처)

www.kci.go.kr

Abstract

A Study on the Symbolic meaning of Dolharubang

Boo, Jung-Min*

This paper is about the symbolism of the dolharubang. From long ago the Jeju-do people also inscribed human figures onto stones and infused their stones with lives and projected material from their unconscious. One such representative stone statue is the dolharubang. In this study, the author will examine general information and knowledge about dolharubang and explore the meaning of dolharubang in Jeju-do people's lives through legends, stories, and recent literature, such as poems. Also explore he meaning of dolharubang in psychological therapies using symbols, such as sandplay therapy. My research revealed that the dolharubang symbolizes protection, threshold, incantation, animus, and the archetypal godfather.

Key Words

dolharubang, symbol, protection, threshold, incantation, animus, archetypal godfather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 Psychology Speech & Language Therapy, Jeju International University.

www.kci.go.kr

교신 : 부정민 690-7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70(영평동, 제주국제대학교)
(E-mail : jmb0024@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2. 12. 20.
심사완료일 2013. 02. 05.
게재확정일 2013. 02. 15.

www.kci.go.kr